

# 美國 大學에서의 母國語教育

宋 基 中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美國 大學의 母國語, 즉 英語教育은 敎養課程에서 이루어진다. 敎養英語의 기본 목적은 전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讀解力'과 '作文力'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學習量은 상당하다. 아직도 英語驅使力은 大學敎育의 成效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社會活動 과정에서도 흔히 요구된다.

## 1. 韓國과 美國 大學의 敎養課程制度

주지하는 바와 같이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敎育制度는 대체로 美國의 제도를 참고하여 수립되었고, 그 후 개정할 때마다 역시 미국의 제도가 항상 주요한 참고 대상이 되어 왔다. 高等敎育(higher education), 즉 大學敎育을 이수하기 전에 初等 및 中等敎育을 12년간 이수해야 하고<sup>1)</sup> 大學敎育의 學部課程은 4년, 碩士課程은 기본적으로 2년에 수료하게 되는 學制는 美國의 일반적인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다. 그밖에도

理工系와 商經系 등의 技術敎育 學科가 다양하게 설치되어 온 사실,<sup>2)</sup> 그리고 근래에 大學院敎育이 확장되고 중요시되는 현상<sup>3)</sup> 등도 모두 美國 大學敎育의 제도에서 유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美國의 大學敎育課程은 우리들에게 전혀 생소하지 않은 것이다.

日帝時代에 존재하였던 豫科制度를 폐지하고—물론 醫豫科와 齒醫豫科는 아직 존재한다—대학 1학년은 대부분 敎養課程으로 설정한 제도 역시 美國 제도를 본받아 수립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大學學生들과 같이 미국 대학생들도,

- 1) 美國에서 初等 및 中等敎育은 각 敎育區(school district)의 敎育委員會(board of education)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유치원(kindergarten) 1~2년 후 12년간의 學校敎育(義務敎育)을 이수해야 大學入學 자격이 부여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12년간의 敎育기간은 보통 public school (elementary school) 9년과 high school 3년으로 구분하지만, 지역에 따라 8년과 4년, 혹은 6년과 6년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high school은 junior high(7~10학년)와 senior high(11~12학년)로 구분하기도 한다.
- 2) 人文科學(宗敎學, 哲學, 文學 등) 중심의 전통적인 大學敎育과 더불어 農學, 工學 등 실생활에 필요한 技術敎育 學科가 대거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南北戰爭이 끝난 후(19세기 중엽)부터이다. 中·西部의 대규모 州立大學들이 대개 이때 수립되어 人文科學 중심의 東部 名門들에 필적하는 명성을 획득하여 왔다.
- 3) 學部 1~2년을 敎養課程化하고, 專門敎育을 大學院에서 주로 실시하는 전통 역시 1950~60년대부터 美國에서 시작되었다.

지방하는 專攻에 관계없이 대학에 입학한 후 여러 가지 一般敎養科目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개 1학년 과정에서 취득하는 데 비하여, 미국 학생들은 보통 1학년과 2학년의 2년간을 敎養科目의 수강으로 보낸다. 아래 기술하는 美國 大學 敎科課程에서의 母國語 (native language) 즉 英語는 우리나라 대학과정의 國語와 같이 교양과목이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必須科目이고, 보통 수준의 대다수 학생들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야만 合格點數를 받을 수 있는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되어 왔다. 미국 대학의 '英語' 과정을 이해하려면, 일반적인 '科目의 適當授業時間'과 '學習量'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하기 때문에 아래 간단히 소개한다.

## 2. 科目의 授業時間과 學習量

우리나라 學制의 기본 골격은 미국의 제도를 모방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敎科課程의 세부적인 운용 면에서는 상이한 점도 적지 않다. 그 중 한 가지가 한 學期에 수강하는 學科日의 수효와 每科日의 適當 授業時間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매 학기에 7~8개 내지 10여 개 과목을 수강하는 데 비하여 미국 학생들은 표준이 4개, 많아야 5~6개만 수강하기 때문에, 대학 在學期間 중에 이수하는 과목의 수효는 한국 대학이 월등히 많다. 學科日의 수효가 많기 때문에 適當 총 수업시간은 한국이 많지만, 과목당 수업시간은 미국쪽이 월등히 많다. 즉,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과목을 주당 대개 1회 1~3시간 수업을 받는데, 미국에서는 소수 과목(대부분 4과목)을 각각 주당 2~3회, 매회 60~120분 수업을 받는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예를 들어 體育, 실형 실습, 세미나 등) 대개 어떤 한 과목은 月·水·金曜日의 동일한 시간에 60~90분, 혹은 火·木曜日의 동일한 시간에 100~120분 수업을 받도록 시간표가 작성된다(토요일은 휴일이다). 즉, 과목당 1주일에 2회 혹은 3회 수업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sup>4)</sup> 우리들에게 익숙한 適當 1시간 수업을 1학기 수강할 때 1학점으로 계산하는 제도에 의하면 美國 大學의 보통 과목들은 4~5학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아직도 우리와 같은 適當 수업시간에 따른 學點制度를 채택하고 있는 대학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 대학에서 그와 같은 제도를 오래전에 폐지하고, 모든 과목이 동일한 비중을 가졌다고 인정하여 科目單位數(course unit)로 學業의 進度 및 卒業 여부를 결정한다.

대개 年間 30週 교육을 실시하며, 그것을 2개 학기로 나누는 제도를 semester system, 3개 학기로 나누는 제도를 quarter system 이라고 부른다.<sup>5)</sup> 따라서 semester의 경우 가을학기가 14~15주이고, 봄학기는 15~16주이다(이것은 한국과 같다). quarter의 경우 1학기가 10주이다.<sup>6)</sup> semester의 15주 혹은 quarter의 10주에는 純粹敎育週間과 시험주간만 포함되고, 주수감사절 휴가(11월), 부활절 휴가(3월) 등과 같은 정기휴일 주간은 제외된다. 또 축제 등 學生活動으로 인한 수업의 진손은 원칙적으로 전혀 인정되지 않고, 교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缺講도 거의 없다. 따라서 계획된 주간의 수업시간은 완전히 이행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1개 과목의 학기당 수업 회수는 semester의 경우, 週에 2회 수업이던 26~30회, 주에 3회 수업이던 39~45회가 된다.<sup>6)</sup> quarter의

4) 대학에 따라 語學科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60분씩 실시하는 곳도 있다.

5) quarter('1/4')는 의미 그대로 年間 4개 學期 중 1개 학기이지만, 여름기간 중의 한 학기는 대부분의 學生들이 등록하지 않으며, 그 대학의 正規 學生으로 인정받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다.

6) semester와 quarter의 授業週間數가 다르기 때문에, 學期制度가 다른 대학으로 轉學한 경우 편요소 quarter 1학점을 semester 2/3학점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면, quarter 제도에서 취득한 60학점을 semester 제도로 전학할 경우 40학점으로 인정받고, 반대로 semester에서 이수한 40학점은 quarter 제도로 전학시 60학점으로 인정받는다. 이것은 편요소에만 적용되는 換算法이고, 대개는 취득과목의 내용만 중요시된다.

가을학기(Fall Semester)는 보통 14~15주이기 때문에, 마지막 1주를 시험기간으로 제외하면 13~14주가 수업기간이고, 봄학기는 15~16주이기 때문에 14~15주가 순수 수업기간이다. 중간시험 기간을 1주간 수업기간 중에 포함시키는 학교도 있고, 특별히 설정하지 않고 담당교수의 제량에 의하여 어떤 수업시간에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도 있다.

경우는 주에 2회 수업이던 18~20회, 3회 수업이던 27~30회 수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미국 대학에서 한 과목을 한 학기 동안 수강하는 학습량은 한국 대학에서 수강하는 1개 과목의 학습량에 비하여 엄청나게 많다.

‘英語’를 비롯한 모든 敎養科目들도 위에 기술한 것과 같이 수업시간이 배정되기 때문에 한국 대학에서 수강하는 교양과목과는 우선 양적인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한국의 대학에서는 어떤 과목이 週當 1회 수업이던 11~12회, 주당 2회 수업이던 22~24회 수업을 한 학기에 이행한 것이 아마 지극히 양호한 결과일 것이다.

일정한 기준이나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 미국의 세칭 名門大學 學部에 제학중인 보통 수준의 학생들은 科目當 毎주 평균 10시간의 自習(예습, 복습, 숙제)이 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4개 과목을 수강할 경우 주당 40시간을 공부해야 하는 셈이며, 수업시간 16~20시간을 합하여 56~60시간을 학업에 소요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것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매일 평균 8~9시간이 학습에 이용되는 셈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에 공부하지 않는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시간 이상을 학업에 소요하는 셈이다.

### 3. 美國 學校教育에서의 母國語教育

初等教育으로부터 高等教育까지 美國의 學校教育課程에서 英語教育의 基本目標은 ‘읽기(reading)’와 ‘쓰기(writing)’의 능력을 배양하고 증진하는 데 있다. ‘읽기’ 교육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語彙力의 증진’으로, 初等教育課程에서부터 계획적인 어휘습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종 英語試驗에서 어휘력을 측정하는 항목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보통 요구하는 TOEFL 시험이나, 大學院 修學能力 측정시험인 GRE에 어휘력 시험이 높은 비중을 점하며, 4지선택 문제들이지만 까다롭다는 사실은 한국 학생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이다. 미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에게 영어와 수학으로 시험하는 대학교육 이수능력

측정 고사인 SAT(Scholastic Aptitude Test)도 역시 어휘력 시험이 주요 내용이다. 의무교육 12년간에 대개 2만 5천 단어 수준까지 습득시킨다고 하며, TIME이나 New York Times와 같은 대중지의 해독 능력은 6~8학년 수준이라고 한다. 물론 미국에도 12년 교육을 이수하고도 文盲者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수년 전에 사회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쓰기’ 교육은 초등교육 과정에서 ‘철자법(spelling)’ 교육으로부터 시작하여 文法에 맞는 文章, 논리에 맞는 문장, 적합한 單語를 선택하여 쓰는 문장 등을 쓰는 훈련으로 발전하고, 아울러 단순한 사실을 기술하는 훈련에서 시작하여 점차로 복잡한 내용을 묘사하거나 논리적으로 고차적인 思想을 기술하는 훈련으로 발전한다.

고등학교까지 12년간의 영어교육이 교양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읽기와 쓰기 능력을 부여하는 데 그 기본목표가 있다면, 대학교정의 영어교육은 高等教育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讀解力과 作文力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영어는 專門教育을 수행하는 데 분야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불가결한 道具로서 중요시되는 것이다. 과거에 대학교육 과정에서 라틴어가 필수적일 때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주로 라틴어를 교육시켰던 豫備學校 grammar school 과정을 거쳐야 했던 西歐와 美國의 전통이 敎養英語課程에 남아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 4. 大學의 敎養英語科目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大學의 敎養課程은 美國 大學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었다. 美國 大學의 ‘英語’ 과목은 우리나라 대학의 ‘敎養國語’와 같은 위치이다. 대다수의 대학에서 ‘英語’와 ‘美國史(American History)’는 學部の 필수과목이다. ‘數學’, ‘論理學’ 등도 필수 교양과목으로 설정된 대학들이(필수 여부는 대개 學科에서 결정한다) 많이 있으나, 英語와 美國史 외에는 주로 선택교양과목들이다.<sup>7)</sup>

7) 대학에 따라서 다르지만, 흔히 講座番號 1~99까지가 1~2학년생들이 수강하는 교양과목들이고, 100~200번이 3~4학년생들을 위한 전공선택 과목들이며, 200번대가 대학원 과목, 300번대가 세미나 과목 등으로 분류된다.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英語'는 흔히 'Freshman English Course'라고 불려진다. 대학에 따라 단일 영어과목만 개설하여 독해력과 작문력을 동시에 교육시키는 곳도 있고, 文學(literature)과 作文(composition/writing)과목을 번개로 개설하여 두 과목을 다 필수로 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대학들도 있다.

### 1) 班編成

英語를 비롯하여 獨語, 佛語, 스페인語 등 모든 語學科目은 다른 강의과목들에 비하여 원동히 인원수가 적은 반편성을 한다. 같은 교양과목이라도 經濟學, 生物學, 人類學 등은 때로는 수백 혹은 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대강당에 앉아 수강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여러 교실에 분산 배치되어 텔레비전을 통하여 교수의 강의 내용을 청취하고 강의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으나, 語學과목의 경우는 10~20명 단위 반편성이 보통이고, 많아야 30명을 넘지 않는다. 특히 作文科目은 文學科目보다도 소규모의 반편성을 하는 것이 상례이다.

### 2) 講 師

소규모 반편성으로 인하여 필요한 다수의 담당 인력은 주로 大學院 英文科 박사과정에 있는 助教(teaching assistant)로 충당된다. 과목의 責任教授는 때로는 수석 명이나 되는 助教들만 관장하면서 重點指導事項, 진도, 교육방법 등을 조절한다. 열성적인 교수들은 자 班(section)을 순회하며 조교들의 수업 양태를 참관한다.

### 3) 文學科目

문학과목은 독해력의 증진에 기본 목표가 있지만, 作品을 이해하고 섭렵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목적도 물론 있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美國文學은 도외시되고, 주로 英國文學이 취급되었었다고 하지만, '60년대 중반 이후 美國 作家들의 작품이 오히려 선호되어 왔다.

어느 대학이거나 관계없이 문학과목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과제르 읽어야만 하는 작품의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다. 물론 책의 크기와 인쇄된 형태에 따라서 한 페이지

지의 양이 다르지만, 매주 적어도 50페이지, 많으면 200~250페이지를 독파해야 그 과정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다. 다른 과목(보통 3과목)의 학습을 동시에 수행하며 매주 평균 150 내지 200 페이지를 읽기란 그리 수월하지 않다.

주당 보통 3회 있는 수업시간에는 읽어 온 작품의 내용에 관한 토의 혹은 발표를 하거나, 담당자의 강의를 듣는다. 반의 전성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기회가 자주 있다.

교재는 여러 작가들의 詩·小說·희곡 등을 수록하고, 매 편마다 이해 방법을 제시하고 연습과제문 제시하는 형태로 편찬한 방대한 교과서(흔히 1,500페이지 내외)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부교재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교과서가 없이 시중에서 흔히 구입할 수 있는 文庫本(Pocketbook)을 다수 이용시키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이거나 한 학기 15주(혹은 10주)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독파하는 문학작품의 양은 방대하다.

### 4) 作文科目

대학의 교양과정으로서 作文科目은 학생들에게 주로 論理的인 전개가 필요한 作文에 관계되는 사항들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작문의 기초이론' '글의 종류' '句讀法' 등에 관한 항목들이 각종 作文教科書에 흔히 등장하지만, 실제 作文教育 과정에서 중요시되는 내용들은 '단락(paragraph) 구분의 적절성', '어휘 선택의 적절성', '논리적 전개' 등이다.

대개 1주일에 한번씩 제출하는 작문(분량을 제한한다)을 담당 강사가 세심하게 점검하고 평가하여 학생들에게 돌려준다. 철자법이나 문법상의 오류는 초보적인 것으로 적은 점수가 감점되지만, 적절한 단어가 선택되지 않은 경우는 보다 많은 점수가 감점되고, 특히 단락의 구분이 잘못되었거나 논리성이 막막할 때는 전체 평점이 저하된다. 그 밖에도 '語順'이나 여러 가지 '句讀點'까지 일일이 점검한다. 英語作文에서 극도로 회피하는 득이란 사항을 한 가지 언급한다면, 한 단락내—심지어 한 페이지내—에서의 동일한 단어의 반복 등장이다. 가끔씩 同

義語를 찾아 쓰도록 훈련시킨다.

주당 2~3회 있는 수업시간에는 교재에 등장하는 예문을 토의적으로 분석하거나, 제한된 시간내에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작문을 하든가, 학생들의 작문에 대한 강사의 비판을 듣든가, 作文理論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作文은 물론 感想文보다 사물이나 사실에 대해 관찰·분석한 내용을 요구한다.

작문 교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한 가지는 '작품의 기호 이론', '문의 종류', '단락 구분법', '단일문장 구성법', '단어의 선택', '문법', '구두법' 등 작문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방대한 책으로,<sup>8)</sup> 교과서로보다는 참고서 혹은 교범으로 이용되는 책들이다. 다른 한 가지는 앞에 기술한 참고서보다는 분량이 보통 적고, 교재로 사용하기에 알맞게 풍부한 예문과 연습문제를 제시한 책들이다. 대학생들의 작문교육에 필요한 사항들만 중점적으로 취급하였다.

작문과목을 수강하기 위한 교재가 한두 가지 반드시 선정되지만, 실제 교육과정에서는 교재 중심이 아니고 학생들의 實技, 즉 作文訓練 중심이다. 당연한 일이다.

## 5. 大學教育과 英語

美國 大學教育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英語의 讀解力과 作文力은 교육의 成敗를 좌우하는 要因이라고 할 수 있다. 自然科學이나 工學 분야에서 英語가 중요하지만, 특히 人文社會科學의 제 분야에서서는 절대적이다.<sup>9)</sup> 각 課程마다 부여되는 상당한 분량의 '讀書目錄(reading list)'에 수록된 必讀文獻(required reading)만 득파하려 해도 상당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學期末 리포트(paper)<sup>10)</sup>나 卒業論文(thesis)의 내

용이 아무리 독창적이고 우수해도 기술된 영어가 불량하여 나쁜 평가를 받거나 불합격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주변에는 職業潤文人(professional editor)들이 적지 않다.

美國의 學生들이나 教授들이나 一般 文筆業 종사자(신문기자, 작가 등)들에게는 '潤文(editing)'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일반인의 간단한 부고문으로부터 저명한 學者의 論文에 이르기까지 潤文過程을 거치지 않고 인쇄되는 경우는 아주 희귀한 것이다. 오랫동안 學術誌의 編輯人으로 다른 학자들의 논문을 문법해 온 老 學者의 論文도 자신이 관여해 온 그 잡지에 게재하기로 결정된 후 다른 편집인에 의하여 뒷 차례 운문되는 것을 본 일이 있다.

會社에서 발송되는 商用書信도 타이피스트에 의하여 운문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따라서 유능한 타이피스트(secretary)는 英語를 잘 구사하는 능력을 소지한 사람이며, 그렇기 때문에 美國에서는 英文科출신 여학생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용이하다고 한다. 어느 관청이나 회사에 근무하는 타이피스트건 책상서랍 혹은 서가에 영어사전과 간단한 문법서, 동의어 사전 등을 항상 비치하고 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미국의 최고 名門大學이라는 하버드와 예일이 유명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졸업생들의 英語驅使力이 탁월하였던 데 있다고 한다. 즉, 大學教育 과정에서 英語訓練을 중시하였던 것이다. 大學의 급격한 팽창, 視聽覺教材의 다량 보급, 自然科學 및 工學教育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英語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퇴하는 등의 이유로 美國 大學學生들의 '읽기'와 '쓰기' 능력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저하되었으나, 아직도 '英語'는 大學課程에서 필수적이며 어려운 科目 중의 하나이다.\*

8) 근래에 국내에서 다수 발간된 大學作文 교제들 중에서 몇 가지는 이런 종류의 미국 책들을 참고하여 집된 듯하다.

9) 1960년대로부터 學部科目의 教材 및 副教材, 그리고 參考文獻들은 英語로 기술된 것들만 선정되어 왔다. 즉, 오늘날 美國 大學의 學部課程에서 教授가 獨語, 佛語 등 외국어로 기술된 참고문헌을 학생들에게 과제로 부여하는 일은 아주 드물다. 물론 그 外國語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다르다.

10) 우리나라 학생들이 흔히 '리포트' 혹은 '논문'이라고 부르는 학기말 과제는 美國에서는 보통 paper라고 부르고, 저학년의 경우 essay라고도 부른다.